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and General Situation of Public Libraries in Taiwan

우 윤 희 (Yun-Hee Woo)*

김 종 성 (Jong-Sun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3. 대만 공공도서관 현황과 특징 |
| 2.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 | 3.1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 |
| 2.1 1945년 대만광복 이전 | 3.2 타이베이시 도서관 현황 |
| 2.2 1945년 대만광복 이후 | 3.3 대만 공공도서관의 특징 |
| | 4.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대만의 공공도서관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901년 대만문고를 일본 거주민이 설립함으로써 시작된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대만총독부도서관 설립으로 본격화되었다. 광복과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천도 이후 침체를 겪다가 1979년 '문화건설계획' 이후 양적으로 늘어나고, 1987년 계엄령 해제로 출판물이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급격히 발전한 대만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통해 공립공공 도서관이 발전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 국가도서관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도서관 관장이 도서관전문가라는 점, 현장에서의 연구가 활발하다는 점, 도서관의 독서진흥활동이 성인독자, 노인독자 등 연령대를 폭넓게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녹색도서관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review the history and general condition of Taiwanese public libraries. The first Taiwanese public library was established in 1901 by Japanese resid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fter Independence and moving the seat of government to Taiwan, public libraries was depressed. But since 1979 public libraries have been increased quantitatively because of the construction of culture center and qualitatively because of growth of publications in 1987. Then Taiwan public libraries was developed very rapidly. There are several advantage, including government library's leadership, professional chief librarian, tradition of field research by librarian, inter-library cooperation system, green library building, and so on.

키워드: 대만 공공도서관, 타이베이시립도서관, 아시아 도서관, 아시아 공공도서관, 아시아 도서관사
Taiwanese Public Library, Taipei Public Library, Asian Library, Asian Public Library,
Asian Library History

*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계명대 BK21플러스사업팀(yummystory@naver.com) (제1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s1010@km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4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8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353-379,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353]

1. 서론

대만¹⁾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나라이다. 1894년 청일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할양된 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50년 동안 일제강점 아래 있었다는 점이나, 광복 후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1949년 대만으로 중화민국 정부를 천도한 뒤 강력한 정치적 통제 속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정치·경제적 배경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일제강점기 중국대륙에서 있었던 항일투쟁에서부터 해방 후 정치경제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1992년 한-중 수교로 대만과는 외교를 단절하고 경제교역국으로서만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경제, (과학)교육 등에 대한 연구는 더러 있었지만 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서관과 문헌정보학분야에서도 단교 이전에는 대만성립타이베이도서관(臺灣省立臺北圖書館)을 탐방한 뒤 소개(한국도서관협회 1958)하거나 대만의 도서관학 교육현황연구(손정표 1981)가 발표되는 등 대만 도서관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중국²⁾-일본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 교육을 비교하는 연구(이영자, 남권희 1983; Um 1989)나 한-중 양국의 대학도서관 기준을 비교하는 연구(조형진

1989) 등을 통해 대만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3국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에 대한 비교 연구도 시행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만과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대만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도 대만은 정치·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높은 교육열, 사회지표, 유교 문화, 한자문화권 등의 면에서도 비슷하다. 하지만 다양한 종족과 언어로 인한 다문화적 환경을 가졌다는 점은 우리와 다른 특징이며 이는 도서관 발전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만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는 연구는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의 그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해 온 국가의 공공도서관 발전상을 우리나라 도서관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의 공공도서관 역사와 현황을 탐구하는 이 연구는 대만 도서관 연구를 위한 배경적 지식을 담은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대만의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현황만을 다루고 있으며, 도서관연감을 비롯한 도서관백서, 활동모음집 등의 도서관 관련 출판 자

1) 대만은 2011년 기준 인구 2천 322만 명으로 총면적 3만 6천 8㎢로 우리나라 면적의 1/3정도이다. 종족구성은 외성인(대만천도 이후 유입), 민남인, 객가인과 2%의 원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도 베이징표준어를 국어로 하며 민남어, 객가어, 원주민어가 사용된다. 공식국호는 '중화민국'이나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대만'으로 서술한다.

2) 1992년 이전 연구에서 중국은 '자유중국'인 대만을 가리킨다.

료와 학술 논문, 주요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이다. 따라서 대만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취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2.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살피는 국내 연구는 없으며, 대만에서는 왕메이링(王梅玲)이 중화민국 개국 100년을 돌아보는 『中華民國發展史』³⁾의 한 부분으로 도서관발전사를 정리한 것이 있다(王梅玲 2011). 이 연구는 1949년 중화민국정부의 대만천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천도 이전은 대륙시기 도서관 발전과 일제강점하의 대만 도서관 발전으로 구분하여 살폈으며, 천도 이후는 재건을 위한 발전적 사업시기(1949년~1979년)와 번창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1980년~2010년)로 나누어 살폈다.

왕젠구(王振鵠)는 1945년 이후 대만 공공도서관사업 발전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1945~1952년을 재건 단계, 1953~76년을 성장 단계, 197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번창 단계로 보았다(王振鵠 2007). 쑹젠청(宋建成)은 지방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1945~1976년을 현시립도서관시기, 1977~1998년을 현시문화센터시기, 1999년 이후부터 현재를 현시정부문화국시기로 나누어 보고 있다(宋建成 2007).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만의 공공

도서관 발전 역사를 대만 광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광복 이전의 역사는 중국대륙에서의 역사와 일제강점하의 대만 도서관 역사로 구분하여 보고, 광복 이후의 역사는 광복 후 중화민국정부의 대만천도 이후 국가 전반의 통치 기반이 이루어지는 1955년과 계엄령 해제로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의 기점이 되는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3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2.1 1945년 대만광복 이전

2.1.1 일제강점기 대만 공공도서관 역사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아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형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은 대만 거류 일본인의 자료수집과 독서를 위해 설립된 사립도서관과 대만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총독부도서관에 의해 주도되었다. 대만총독부는 식민통치 초기 대만인의 저항을 누르기 위한 치안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회교육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으나(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005, 81-82), 식민지 정책과 황민화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식민지 기술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1800년대 후반 이미 현대적 의미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아시아의 도서관 운동에 선도적이었던 일본은 대만에서도 대만 거류 일본인을 위한 사립도서관을 세웠다. 대표적인 사립도서관으로 1901년 타이베이 단수이관(淡水館)에

3) 2011년 중화민국 건국 100년을 기념하여 일제강점하의 대만역사와 중국대륙에서의 중화민국 역사를 포함하여 중화민국 100년의 발자취를 정리한 책이다. 국립정치대학 주도로 149명의 학자가 2년에 걸쳐 학술발전, 정치와 법제, 경제발전, 사회발전, 문학과 예술, 교육과 문화로 나누어 12권으로 구성하였으며, 도서관발전사는 교육과 문화 편에 있다.

세워진 대만문고(臺灣文庫)와 1909년 지룽(基隆)에 세워진 석판문고(石坂文庫)가 있다.

대만문고(臺灣文庫)⁴⁾는 “대만에서 민간에게 지식을 넓히고, 풍속 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며,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동서양의 문화가 종합, 조화하기에 적합하므로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 학문 육성에 이바지한다(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005, 83).”는 설립취지를 통해 공공도서관이라는 현대적 도서관의 이념을 표방하였다. 1906년 재정난으로 휴관하면서 재건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요구는 대만 최초 국립공공도서관인 총독부도서관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석판문고(石坂文庫)⁵⁾는 1909년 최초의 독립된 건물을 가진 도서관으로 일본인 실업가 이시자카 쇼우사쿠(石坂莊作)의 사재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취지는 대만문고(臺灣文庫)와 같지만 일본인과 대만인을 불문하고 만12세 이상의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王梅玲 2011, 543)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공공도서관으로서 성격을 가진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1924년 재정난으로 휴관하였으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민중에

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3개의 분관을 설치하고, 지룽(基隆)시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순회문고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대만 공공도서관 운영의 모범을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립도서관의 설립과 운영난으로 인한 휴관은 국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대만총독부는 1914년 ‘대만총독부 도서관령’을 공포하고 다음 해 8월 대만 최초의 국립도서관인 대만총독부도서관(臺灣總督府圖書館)⁶⁾을 설립하였다(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005, 88-94; 王梅玲 2011, 544). 이 도서관은 일반 교육 보급, 대만문헌과 남중국, 동남아시아에 대한 연구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台灣大百科全書網站 2014). 이러한 성격은 일제의 남진정책을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만의 지정학적 조건이 적합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순회문고와 도서상담부를 세워 참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도서관 직원의 계속 교육, 각지 도서관 직원교육, 전도도서관협의회, 전국 각지 도서관 대표인사 공동세미나를 개최

4) 대만문고(臺灣文庫)는 열람료를 1회 3전 지불하였으며 군인과 경관은 절반금액이었다. 열람시간은 오전과 오후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초기 장서 5,639책, 서양서 224책으로 주요 이용자는 재대만 일본인(내지인)으로 회원제 도서관이었다. 1906년 재정난과 부지가 시의 구획정리 대상이 되면서 휴관하였으며, 이후에 대만 총독부 도서관에 장서 1만 3천책이 인계되었다.

5) 개관 초기 8,416책으로 1년 동안 345일 개방하였다. 개관 15년 후 장서가 약 2만 책으로 늘어났으며, 독자가 5천명에 도달했다.

6) 대만총독부도서관 장서는 개관 당시 대만문고에서 인계받은 장서 중 약 7,000여 책, 총독부 문서와 장서 약 5,700책, 신규 구입 도서 약 6,000여 책 및 기증 도서 등 합계 22,700여 책이었다. 도서관장은 太田爲三郎(2대 1921: 도서관 기초 마련, 동남아 조사자료 구축, 참고조사도서관으로서 장서 정비) - 並河直廣(3대 1921~27: 관외대출, 순회문고, 도서관강습회, 도서상담부로 참고업무 개시) - 山中樵(4대 1927~45: 대만 도서관망 구축, 전체 공공도서관 지원, 도서관 미설치지역 해소 노력, 장서 확대 및 정비, 열람실 증대, 순회문고 확장, 참고 업무 충실, 강습회 계속, 장서목록 간행, 대만남방 관계 목록 제작, 『도서관 뉴스』 라디오방송, 학교도서관 육성 등)로 일본 니이가타현립도서관장과 이시카와현립도서관장을 역임한 자들이다. 1943년에 이르러서는 장서가 19만 5천책에 이르렀는데 일문도서 위주였다.

하기도 하였다(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005, 90).

그 후 대만총독부는 1923년 '대만공립·사립 도서관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전국 각 주나 혹은 2개 이상의 지역이 연합하여 도서를 수집하고 민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국 지방공공도서관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타이중주립도서관(臺中州立圖書館), 타이난시립도서관(臺南市立圖書館), 시립가오슝도서관(市立高雄圖書館) 등이 설립되었고, 1932년에는 전국에 70여개 공사립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1927년 대만도서관협회의 발족으로 전국 도서관사업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회보발행, 연구회·전람회·강연회 개최, 직원 강습회 운영 등을 진행하고, 도서관주간과 도서관기념일을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대만도서관협회는 그 구성원이 도서관직원이 아니라 총독부와 총독부도서관 직원으로 한정되어 관계적 성격이 강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대만 공공도서관은 초기에는 거류 일본인에 의한 사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만총독부도서관 설립 이후에는 대만총독부의 주도로 발전하였다. 1943년에는 대만 전체 공사립도서관 93개 중 4곳만이 사립도서관이었으며, 대만도서관협회 역시 총독부도서관이 주도했다(台灣大百科全書網站 2014).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제의 남진정책을 위한 자료수집과 서비스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이런 특징은 우리나라가 대부분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개인이나 향교재단 등의 주도로 사립도서관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이 1925년 문화통치가 시작된 이후에 개관하였으며, 조선도서관연맹이 1937년 이미 많은 사립도서관을 폐관하고, 공립화한 시기에 출범되었다는 점 또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만총독부도서관의 주도로 설치 운영된 공공도서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우리나라와 대만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이 달랐고,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언어인 일본어에 대한 대만인과 조선인의 인식에 차이⁷⁾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일제강점기 도서관이 대만인에게는 이용과 독서를 권장하는 풍토⁸⁾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설립을 탄압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통치 풍토를 만들어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장 역시 대만은 일본 도서관 전문가가 맡은 반면 우리나라 도서관장은 각 행정기관의 일본인 또는 조선인 행정가가 맡게 하였다.

2.1.2 중국 대륙에서의 역사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가 천도한 뒤 장제스(蔣介石)의 강력한 정치적 통제 하에서 발전하였다. 대만 천도 후 정치와 경제를 위한 기관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의 부문에서도 천도 이전의 기관이 대만

7) 대만은 다종족, 다언어 지역으로 일제강점하에서 일어난 식민지배를 위한 언어인 동시에 대만인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되었다.

8) 1942년 우리나라 도서관 이용자수는 1,867,634명(김남석 2010, 83)이며, <표 1>을 토대로 추량하면 대만은 최소 12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대만인구보다 4배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제강점기 대만 도서관의 도서관 홍보활동이 대단히 왕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표 1〉 일제강점기 대만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관)

구분	기준	타이베이주	신베이주	타이중주	타이난주	가오슝주	타이둥 화이런 팡호	합계
장서량	2만책 이상		1	1	1	1		4
	1만~2만책	1		1	1	1		4
	5천~1만책			2		1	1	4
	1천~5천책	11	6	17	13	1	2	50
	5백~1천책	2	1	7	4	2		16
	5백책 이하	4		6	4			14
	미상					1		1
	합계	18	8	34	23	7	3	93
연간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1	1	1			3
	5만~10만	2		2	2	2		8
	1만~5만	8	2	11	8	2	2	33
	5천~1만	3	1	6	3			13
	1천~5천	3	3	8	5	2	1	22
	1천 이하	2	1	6	4			13
	미상					1		1
	합계	18	8	34	23	7	3	93

* 자료: 日據時期(1895-1945) 臺灣區公共圖書館事業之研究(曾堃賢 1987, 412-418)/장서량은 1943년, 연간 이용자수는 1942년의 통계

에서 다시 세워졌다. 이는 도서관계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대륙에서의 도서관 역사가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직면했으며, 양무운동의 실패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의 개혁을 하자는 유신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911년 쑨원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건설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한 도서관 설립에 미국식 도서관 개념이 도입되었다. 독서와 도서 이용이 주요 기능이 되는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옌윈위(嚴文郁)는 이 시기 도서관사업 발전의 동인으로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王梅玲 2011, 536). 첫째, 미국식 도서관 개념 도입을 들고 있다. 미국 도서관전문가 우드(Mary Elizabeth Wood)가 도서관을 세워 공적인 독서공간을 만들고 공개 열람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도서관교육의 전개이다. 우드는 도서관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도서관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도서관단체의 조성이다. 중화도서관협회가 만들어져 중국내 도서관 조사, 사업 추진과 상담을 적극 진행하였다. 넷째, 도서관법령의 공포이다. '도서관규정'과 '통속도서관규정'에는 설립조건, 도서설비, 직원자격, 도서관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1925년 만들어진 중화도서관협회(中華圖書館協會)는 1953년 중국도서관학회(中國圖書館學會)로 대만에서 다시 결성되었으며, 1933년 중국 난징에 세워진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대만 천도 후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으로 다시 세웠다. 이 시기 중국대륙에서 형성된 중화민국 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역할 인식과 사업 역량은 대만 천도 후 일제강점 하에서 형성된 대만 도서관의 토대 위에 펼쳐지게 되었다.

2.2 1945년 대만광복 이후

2.2.1 1945년 ~ 1955년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성행정장관공서(臺灣省行政長官公署)를 두어 대만을 접수하였다.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일산처리위원회를 통해 기업체 정리 및 삼민주의와 민족정신 교육 및 표준 중국어 교육의 추진을 중점시책으로 교육을 통한 중국화를 추진하였다(최창근, 홍길동, 신아람 2012, 142-143).

하지만 광복 이전 1943년 93곳에 달하던 공공도서관은 전쟁으로 파괴되어 1946년에는 13곳에 불과했다. 총독부도서관과 남방자료관을 합쳐 대만성행정장관공서도서관(臺灣省行政長官公署圖書館)⁹⁾으로 이름을 바꾸고 1947년에는 대만성정부로 체제를 고쳐 교육청으로 하

여금 도서관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립타이중도서관(省立臺中圖書館), 타이베이시립도서관(臺北市立圖書館), 타이둥도서관(臺東圖書館) 및 현·시립도서관(縣·市立圖書館)을 증설하도록 하였다(王振鵠 2007, 4).

이 과정에서 중문도서 추가 구입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도서관을 재건하도록 하였다. 이후 중화민국정부의 대만천도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고궁박물관, 중앙연구원 및 정부기관 도서와 문헌이 중국대륙으로부터 대만으로 옮겨지면서 대만의 연구자원은 풍부해졌다.

광복 후 전국적으로 10여개 남은 도서관¹⁰⁾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새로운 대만도서관체제를 정비하였다. 1954년 국립중앙도서관을 다시 세우고, 장푸충(蔣復璁)의 책임아래 장서를 옮기고 자료 수집, 정리 및 전국 도서관 사업 연구, 목록색인, 출판물 국제교환, 직원 계속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대학도서관 장서와 설비를 정비하고, '대만성 각 현시립 도서관 조직 규정(臺灣省各縣市立圖書館組織規程)' 등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체제를 갖추었다(王梅玲 2011, 545-546).

1953년에는 중국도서관학회(Library Association of China)¹¹⁾로 이름을 바꾸어 도서관협회를 다시 설립하고 도서관계 인력과 지혜를 모

9) 1915년 대만총독부도서관으로 개관하여 광복 후 1945년 대만성행정장관공서도서관(臺灣省行政長官公署圖書館)으로 개칭, 행정체제 개편으로 1946년 대만성립타이베이도서관(臺灣省立臺北圖書館), 1973년 국립중앙도서관대만분관(國立中央圖書館臺灣分館), 2012년 국립대만도서관(國立臺灣圖書館)으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0) 당시 성립타이베이도서관, 성립타이중도서관, 신주현립도서관, 타이난도서관, 가오슝시립 민중교육관, 단둥시도서관, 평후현립 민중교육 도서관, 성립타이둥도서관, 지룽시립도서관, 타이베이현립도서관 등이 있었다.
11) 1925년 북경에서 창립했던 중화도서관협회를 대만천도 후 다시 설립하였다. 그 목적과 임무로 도서관학의 이론과 실무 연구, 국민독서풍조지도, 학계 설립, 도서관 직원 윤리규범 건립, 도서관 관련 표준 정정, 도서관 직원 계속

아 도서관표준을 수정하였으며, 1955년 최초로 국립대만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에 도서관교육팀이 설치됨으로써 도서관과 도서관 단체 및 도서관학 교육을 위한 모든 체제가 정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자료인 도서의 출판은 충분하지 않았다. 1947년 신문처와 번역관을 설립해서 출판 사업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대륙에서 활동하던 출판사들이 건너왔(범우문화재단 2010, 137)지만, 2.28사건¹²⁾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잡지는 폐간되고 도서출판도 정체가 되었다. 이후 1952년 출판법을 공포함으로써 신문, 잡지, 도서 등 출판물 발행 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사본을 납본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는 광복 후 폐허가 된 도서관을 정비하고, 정부의 대만 천도와 함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국립중앙도서관과 도서관협회 설립, 도서관 관련 규정 마련, 대학의 도서관학 교육까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기반을 다진 시기이다.

민남인, 객가인,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대만인의 다양한 종족의 언어는 오랜 식민통치를 거치면서 일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광복 후 국민당 정부는 표준 중국어 교육과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만인과 언어로 인한 충돌을 빚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독서는 기대하기 어려

운 일이었다.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출판문화나 독서문화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발전이 더디었다는 점은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김포옥(1991)이 광복이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 관련 법규정 뿐만 아니라 입관료 징수 문제, 도서관장의 비전문성 문제, 도서관직원의 인사행정문제, 열람방법의 복잡함 등 다방면에서 일제하의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고 비판하였던 것과 달리 대만은 중국대륙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도서관 개념과 시스템이 그대로 대만에 이전 적용되면서 식민통치 행정의 잔재로 인한 문제가 노정되지는 않았다.

2.2.2 1956년 ~ 1987년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천도 후 장제스(蔣介石)가 총통으로 복직하면서 대만은 1987년까지 세계 최장기간의 계엄령 아래 있었다. 일체 정당 및 정치단체의 설립이 금지되었으며, 신문 잡지 등의 출판도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 1979년 장징궈(蔣經國) 체제 하에서 발생한 「미려도」 사건¹³⁾은 민주화 열망이 표출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민주화를 위한 정치세력이 발전하여 1987년 계엄령 해제에 이르게 되었다(최창근, 홍길동, 신아람 2012, 147-151).

교육 추진, 전국 도서관 정보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도서관사업의 협력발전 모의, 전국도서관 계통 발전 촉진, 도서관학 서적 출판 등으로 하였다(中華民國圖書館協會 宗旨及任務 [인용 2014. 7. 13.] <<http://www.lac.org.tw/intro/3>>).

12) 1947년 국민당정부와 외성인의 권력독점과 본성인에 대한 차별, 부정부패, 극심한 인플레이션, 외성인과 본성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발한 대만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중봉기이다. 이 사건으로 큰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본성인 지식인 계층에 집중된 인명피해까지 커 대만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다(최창근, 홍길동, 신아람 2012, 145).

13) 1979년 대만 제2도시 가오슝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만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잡지'인 「미려도」사의 지방지사는

엄격한 출판 통제 아래에서 1960년대에는 구미 서적 번역 출판이 왕성¹⁴⁾ 하였으며, 우리나라 처럼 해적출판 또한 정식 번역 출판만큼이나 활발하였다(범우문화재단 2010, 139). 하지만 출판 통제 하에서 다양한 도서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시기에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 자원인 좋은 장서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58년 성립타이베이도서관(省立臺北圖書館)의 현황을 보면 장서는 270,633책(중문도서 81,697책, 일문도서 144,244책, 서양도서 43,168책, 아동도서 1,524책), 1개월 경상비는 14,100불(도서구입비 3,000불, 정기간행물비 1,700불)이며 직원은 44명이 있다고 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58). 일제강점기 하에서 대만총독부가 관리하면서 수집한 대만의 각 분야 정보를 담은 대만자료 1만여 책과 남아시아 및 남중국 지역의 자료 4만여 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 국립대만도서관에 소장되어 대만학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다.

분류와 목록 등 도서관 운영에 일제강점기 하의 시스템이 남아 있기도 하였으나 중국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만든 중국도서목록규칙에 따라 정리하였다. 미국정보국(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도서관의 도움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며 음악 레코드 콘서트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도서관 체제 안정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나 장서는 일본어 도서가 많았다.

1968년 당시 대만 전역에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비를 갖춘 공공도서관은 20개관이었는데 20개 공공도서관 직원 중 일부만이 강습을 통해 직무 교육을 받았으며, 도서관학 이수자는 전무하였다. 이 시기 대만의 도서관 및 독서 문화에 대해 외국의 전문가들은 독서 인구는 많았지만 공공도서관이 부족하고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미성숙하여 도서 열람보다 학습을 위한 열람좌석 이용에 집중하였으며, 사립 대본도서관이 번창하였고, 서점과 서적행상인이 성업하여 잡지와 신문 구독률이 높았다고 소개한 바 있다(Kaser, Stone and Byrd 1968, 106).

이 시기 중국도서관학회의 연차총회 안건을 보면 1950년대 후반에는 협회 내부 정비와 도서관교육 및 직원, 조직규정 등 행정에 관한 내용, 분류 편목 등 도서관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1960년대는 도서관 표준을 수립하는데 집중했는데 중화도서관 표준(1961년, 9회), 공공도서관 표준(1962년, 10회), 대학도서관 표준(1963년, 11회), 도서관 건축설비 표준(1964년, 12회)에 이르기까지 도서관표준 초안을 위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臺灣百年圖書館史 2014).

1970년대에는 콘텐츠 부족과 용지 가격 인상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판량이 증가했으며, 중화문화부흥운동과 함께 고전적의 출판도 융성하였다. 정치 성향이 짙은 잡지의 출간이 많아졌으며, 종합지보다 경제잡지, 문예잡지와 같은 전문잡지 출간이 많아졌다(범우문화재단 2010, 139, 142).

준 정당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대만 인권위원회 발족을 위한 집회허가 신청이 거부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최창근, 홍길동, 신아람 2012, 151).

14) 1960년부터 1965년까지 대만에서 출판된 번역서는 5,238종이다.

이런 출판계의 변화와 더불어 1972년 전국도서관회의에서는 도서관전문가와 학자, 직원이 모여 분류편목, 참고서비스, 도서관과 사회교육 활동, 도서관행정, 독자의 도서관이용전형, 건축 설비, 도서관교과와 교류, 도서관교육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7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문화건설계획' 실시로 전국에 현·시립 도서관과 향·진도서관 등의 다양한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도서관 위주의 19개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1향 1진 도서관' 계획이 추진되었다(王梅玲 2011, 550).

이 시기는 경공업위주의 공업화로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도약한 시기이며, 1950년부터 강성권위주의 정치를 펼친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1975년 사망 이후 오랜 시간 정치적 독재 하에서 형성된 민주화의 요구가 높아진 시기이다. 따라서 언론 자유에 대한 요구로 잡지 출판량이 증가하였으며, 장징궈(蔣經國)의 도서관, 음악관, 박물관을 포함하는 문화센터 건립 계획으로 공공도서관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변화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3 1988년 이후

1987년 계엄령 해제로 인한 도서와 잡지 출판량 증가와 1979년 '1향1진도서관' 계획으로 도서관수 증가로 1988년 이후 대만 공공도서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표 3> 참조).

<표 2> 대만 공공도서관 현황(1975, 1981)

		관수(관)	분관(관)	장서(책)	직원(명)	
1975년	국립	국립중앙도서관	1	1	449,108	120
		국립중앙대만분관 ¹⁵⁾			381,704	
	공공	성립도서관	1		128,354	98
		원할시도서관	1		205,765	50(56)
		현시립도서관	16		574,012	70(17)
총계		20		1,289,835	218	
1981년	국립	국립중앙도서관	1		596,234	55(120)
		국립중앙대만분관	1		440,860	52(81)
	공공	성시립	3	18	608,097	231
		현시립	16	17	807,972	96
		향진시립	30		369,022	44
		총계	55	35	2,822,185	371

* 자료: 1975년: 三十年來的臺灣圖書館事業(王振鵠 1975);
1981년: 中華民國70年圖書館年鑑(國立中央圖書館 1981)

* 직원 현황 중 ()안은 보조 직원

15) 국립중앙도서관대만분관은 중화민국도서관연감에서 2차도서관연감인 1988년까지는 국가도서관통계에 속하지만 2001년도서관연감부터는 국립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발전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합하였다.

〈표 3〉 대만 공공도서관 및 도서 출판량 추이

	공립공공 도서관수(관)	도서출판량 (종)
1950	20	-
1956	-	2,763
1971	41	8,504
1981	135	8,865
1991	310	14,348
2001	506	36,353
2006	529	42,063
2011	523	42,579

* 자료: 『民國統計100年』(行政院主計總處 2012)

1989년 열린 제2차 전국도서관회의에서는 ‘도서관사업발전위원회’ 설치와 협력목록, 자원공유 촉진, 정보서비스정책제정, 도서관교육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199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가도서관(國家圖書館)으로 바꾸고, 국가도서관으로서 전국적인 도서관 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0년 중국도서관학회(中國圖書館學會)는 『圖書館事業發展白皮書』를 발간함으로써 모든 관중의 도서관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도서관학회가 진단한 당시 대만 도서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은 ① 일반대중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진학에 대한 압력으로 도서관 이용 불충분, ③ 도서관 전문 서비스 인력 편제 부족, ④ 도서구입 예산 저조로 장서발전 곤란, ⑤ 도서관 주관 기관과 지도체계가 같지 않음, ⑥ 도서관사업 총체적 기획 결핍, ⑦ 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규 결핍, ⑧ 자원공유기능 미비와 상호협력 부족, ⑨ 도서관설비와 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⑩ 각 유형별 도서관의 발전 불균형, ⑪ 심도 깊은 지식과 지식서비스 체계의 결핍, ⑫ 현대사회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도서관서

비스 등으로 요약되었다(중국도서관학회 2000).

이들 문제점 중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전문 인력 부족과 인력 체계 정비 필요, 도서관원의 낮은 직급 등과 같은 전문인력의 문제와 도서관 주관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지도체계가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 사업발전과 유지를 위한 경비 부족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정책면, 자원면, 경영면, 사업면으로 나누어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사업 발전 백서에서 제안한 도서관 관련 법규인 ‘도서관법’이 오랜 기간 동안 토의해온 결과 2001년 정식으로 공포되었으며, 이후 도서관의 조직, 설비, 운영,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도서관간 상호협력과 네트워크 형성 등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과 규범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2000년대 초반 도서관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은 이후 열정적인 독서 진흥 활동과 도서관 자동화, 디지털 도서관과 도서관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한 층 더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 기간 동안 국가도서관이 발간한 『中華民國圖書館年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대만 공공도서관 현황(1988; 2001; 2007)

년도	관종		도서관수(관)	분관수(관)	장서량(책)	직원(명)	
1988	국가	국립중앙	1		890,142	240	
		중앙분관	1		514,695	81	
	공공	성시립	4		1,780,249	597	
		현시립		21	64	384,157	83
							1,223,142
	향진시립		236		1,249,270	253	
총계			262	64	5,151,513	1,510	
2001	국립	중앙분관	1		911,913		
		타이중	1	1	702,000		
	성시립	타이베이	1	49	3,187,130		
		가오슝	2	17	870,769		
	현시립		37		4,447,343		
	향진시립		373				
	총계			415	67	10,119,155	
2007	국립	중앙분관	1		1,351,417	74	
		타이중	1	1	723,341	97	
	직할시립	타이베이	1	52	4,878,896	369	
		가오슝	2	16	1,558,728	96	
	현시문화		25	9	18,238,456	2115	
	향진시립		339	115			
	총계			369	193	26,750,838	2,751

* 자료: 『中華民國77年圖書館年鑑』, 『中華民國90年圖書館年鑑』, 『中華民國96年圖書館年鑑』

1901년 대만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사립 대만 문고 이후 113년이 지났다. 일제식민통치 하에서 생성되고 발전한 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다중족, 다언어 사회였던 대만을 통일시키기 위한 일어교육과 식민통치를 위한 인력 양성의 필요에 의해 총독부도서관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또 대만을 남방진출의 근거지로 삼았던 일제의 동남아와 남중국해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한 창구 역할도 겸하였다. 이런 대만 도서관의 대내외적 역할은 일본 도서관에서 관장을 지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참고서비스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일제강점 하의 대만 도서관의 토대 위에 중국대륙에서 성장한 현대 도서관의 개념과 교육, 운영체계 등은 국민당 정부의 대만 천도 이후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초기 중국대륙에서 건너 온 지도층과 기존 대만인들의 언어 차이와 오랜 계엄령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 통제가 계속됨으로써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발맞추지 못했던 정치적 독재는 1970년대 후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1987년 계엄령 해제로 이어지고 도서출판의 자유와 문화 시설 증설로 공공도서관이 실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현재 국가도서관, 국립대

만도서관, 국립공공정보도서관, 타이베이시립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 대만 공공도서관 현황과 특징

3.1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

대만 도서관법 제5조에 의한 공공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인 공공도서관 설립과 운영 기준(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지방 특성과 요구에 따라 도서관 자료와 지방문헌을 수집, 정리 보존하며, 편리한 이용을 위해 도서와 정보를 제공, 사회교육

과 문화활동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며 도서관법 제4조와 사회교육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만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립도서관, 직할시립도서관, 현(시)립도서관 그리고 향(진·시)립도서관으로 나누어지며, 인력, 장서,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표 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공도서관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대만총독부도서관과 타이중주립도서관의 후신인 국립대만도서관(國立臺灣圖書館)과 국립공공정보도서관(國立公共資訊圖書館)이 있으며 국립공공정보도서관은 2개 분관(타이중시, 난터우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립공공도서관은 국가도서관(國家圖書館)과 함께 중앙정부 교

<표 5> 공립 공공도서관 기준

구분	기준	인력	장서	시설 면적
국립 도서관	본관	관사면적, 장서량, 유통량, 분관수와 업무량을 고려함	최소 50만권 해마다 최소 1만권 증가	20,000㎡
	분관		분관은 최소 15만권 해마다 최소 5천권 증가	3,000㎡
직할 시립 도서관	인구 5천명	전임직원 1인	최소 50만권 해마다 최소 7천권 증가	20,000㎡
			분관 최소 3만권 해마다 최소 3천권 증가	1,800㎡
현시립 도서관	인구 50만 명 미만	전임직원 15명	최소 15만권 해마다 최소 5천권 증가	3,000㎡
	인구 50만 명 ~ 100만 명 미만	전임직원 20명	최소 20만권 해마다 최소 6천권 증가	4,000㎡
	인구 100만 명 이상	전임직원 25명	최소 25만권 해마다 최소 7천권 증가	5,000㎡
	분관		최소 2만권 최소 1천권 증가	
향진립 도서관	인구 15만 명 미만	관리원 1인 간사 1인	최소 2만권 해마다 최소 1천권 증가	700㎡
	인구 15만 명 ~ 30만 명 미만	관리원 1인 간사 1인/서기 1인		
	인구 30만 명 이상	관리원 1인 간사 1인/서기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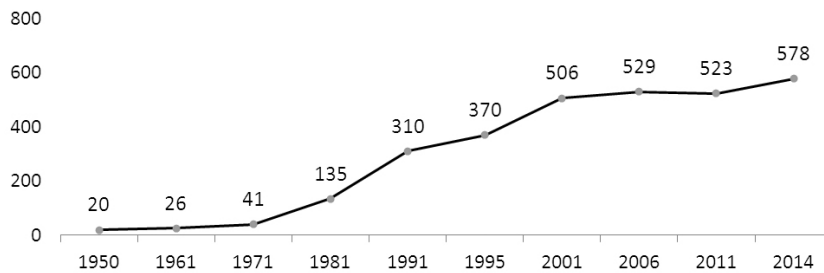
육부 소속이다.

대만의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 대만성 자치제가 폐지되고 2010년 5대 직할시 체제로 개편¹⁶⁾되면서 5행정원직할시(行政院直轄市), 14현(縣), 3시(市)로 구성되어 있으며 5대 직할시에 대만 전체인구의 약 60%가 거주한다(최창근, 홍길동, 신아람 2012, 297). 따라서 직할시립도서관은 수도인 타이베이시를 비롯하여 신베이시, 타이중시, 타이난시, 대만의 제2의 도시인 가오슝시에 각각 총관과 분관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은 각 직할시 지방정부 문화국에 속해있다. 현시립도서관은 14개 현(縣)과 3개 시(市)에 있으며, 향진도서관은 각 현의 향과 진에 속해 있어 현시 문화국에 속해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광복 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서관과 광복 후 세워진 도서관을 합쳐 20개관에 불과했던 국립 공공도서관은 2014년 현재 578개관으로 증가하였다. 국립공공도서관 4개관(분관 2개 포함), 직할시립도서

관 303개관, 현시립도서관 25개관, 향진시립도서관 246개관(國家圖書館 全國圖書館調查統計系統 2014)으로 2012년 도서관 연감(民國101年年鑑)에 나타난 2011년 523개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이지만 이는 2011년 도서관통계에 속하지 않았던 타이베이시의 11개 '민중열람실'과 신베이시의 35개 '도서열람실'이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9개관이 증가하였다.

대만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표 6〉과 같이 장서량이나 도서관 이용정도를 알려주는 대출 책수와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인구 1명당 1권을 목표로 했으나 이 목표는 2005년에 이미 초과달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1.51권이 되었다. 이는 2012년 우리나라 1인당 장서수인 1.49권¹⁷⁾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1인당 대출책수 역시 대만은 2.47권이며 우리나라는 2.44권으로 큰 차이가 없다(한국도서관



〈그림 1〉 대만 공공도서관 증가 추이(단위: 관)

16) 타이베이현(臺北縣)이 새로운 직할시 신베이시(新北市)로 승격되었으며, 타이중현·시(臺中縣市), 타이난현·시(臺南縣市), 가오슝현·시(高雄縣市)가 현·시합병 후 행정원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5대 직할시 체제 출범과 직할시장 및 시의원 등의 선거가 이루어졌다.
 17) 『民國101年圖書館年鑑』과 같은 해 통계를 보여주는 2012년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인구 50,734,0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장서수가 1.43권이지만 대만은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의 합을 인구수로 나누므로 장서수 72,475,471, 비도서 3,100,037를 합해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장서수가 1.49권이 된다.

〈표 6〉 공공도서관 장서수와 대출책수 증가 추이

(단위: 책)

	1981	1988	2001	2005	2007	2011	2012
총장서량	1,852,380	5,151,513	15,602,955	23,886,259	27,713,617	32,842,875	35,053,917
1인당 장서량	0.11	0.28	0.70	1.05	1.21	1.42	1.51
총대출량			20,461,747	31,117,200	39,055,813	53,980,017	57,348,294
1인당 대출책수	-	-	0.91	1.37	1.71	2.33	2.47

협회 2013).

2012년 발행된 『中華民國101年圖書館年鑑』을 통해 대만 주요 도시인 5대 직할시립도서관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8개 현시립도서관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서량이나 대출책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나 인력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대만의 직원평균 봉사인구수인 18,609명은 그 기준이 직원이며, 2012년 우리나라 사서 1인당 봉사대상인구

15,281명은 그 기준이 사서이다. 대만의 도서관 직원 체계나 성격이 우리나라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표 7〉의 사서 직원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서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지만 인력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표 7〉을 통해 대만 내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직할시립도서관과 현시립도서관의 현황을 비교하면 1인당 장서수에서

〈표 7〉 2012년 대만 주요 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관수(관) ¹⁸⁾					인력(명)			장서(책)	
	인구수	국립	직할시립	현시립	향진시립	사서직원	행정직원	1인당 서비스 인구수	1인당 장서량	1인당 대출량
신베이시	3,916,451	1	59			27	37	36,263	1.50	2.47
타이베이시	2,650,968		43			289	28	8,157	2.41	4.32
타이중시	2,664,394	2	41			17	42	20,185	1.46	2.77
타이난시	1,876,960		42			9	32	44,690	1.35	2.48
가오슝시	2,774,470		59			51	82	18,621	1.27	2.42
타오위안현	2,013,305			1	29	21	28	40,266	0.81	2.12
신주현	517,641			1	13	9	18	18,487	1.31	1.90
먀오리현	562,010			1	19	3	29	15,611	1.73	2.19
장화현	1,303,039			1	27	13	55	19,162	1.18	2.20
난터우현	522,807			1	13	2	34	9,506	2.20	2.05
원린현	713,556			1	22	3	31	16,989	1.36	1.31
자이현	537,942			1	19	6	28	15,370	1.51	1.37
핑둥현	864,529			2	36	8	38	18,794	1.60	1.28
대만총계	23,224,912	3	198	23	248	523	601	18,609	1.51	2.47

* 자료: 『中華民國101年圖書館年鑑』

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1인당 대출책수와 직원 1인당 서비스대상 인구수에서 차이가 있다. 인구 1인당 대출책수는 대도시인 직할시립 도서관의 독서활동이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사서직원수 역시 전문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도가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직할시립도서관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타이베이시는 인력 면에서나 장서량, 대출책수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이런 지역 간의 도서관 자원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도서관이 교육부의 지원으로 공공도서관 구역 자원센터(公共圖書館區域資源中心)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國家圖書館 網站 2014). 대만을 크게 4개 지역 북부, 동부, 중부, 남부로 나누고 8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각 지역에 자원센터를 두어 지방 도서관의 독서환경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위해 장서통합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공공도서관 열람도서조사를 통해 통속소설(판타지, 로맨스, 추리소설 등)의 비율이 높은 지방공공도서관의 독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도서관 자료를 '청소년, 지식, 다문화, 창의 문화'라는 4가지 주제로 도서목록을 만들어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

3.2 타이베이시 도서관 현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시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인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은 모든 면에서 발전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의 현황과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 공공도서관의 높은 수준과 역량을 이해할 수 있다.

3.2.1 일반 현황

〈표 7〉에서와 같이 직할시립도서관 중에서도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은 전문사서의 수, 1인당 장서량, 1인당 대출 책수에서 다른 지역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전문사서 523명 중 타이베이시에 289명이 있으며 다른 시에는 가오슝시에 51명을 제외하면 10명을 넘지 않는 지역이 많다. 행정직원의 경우 타이베이를 제외하면 모두 전문사서 인원보다 행정인원이 더 많다. 독서인구도 1인당 대출권수가 타이베이시는 4.32권으로 전국 2.47권에 비해 아주 높으며 인구수가 260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본다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이베이시는 대만의 수도로 2014년 5월 현재 인구 2,692,138명으로 인구밀도가 9,904명이 넘는 대도시이다. 대만 주요 대학이 다수 타이베이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만 천도 후 서점이 많이 생겨 독서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이다.

〈표 8〉은 지난 30여 년간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의 발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66년 10만권에 불과했던 타이베이시립도서관 장서는 1981년까지 15년간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출책수 또한 2001년 1인당 1.38권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인당 4.32권에 이르고 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타이베이 시민들이 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고 독서 정보를 얻어 오다가 공공

18) 총관과 분관 합계

〈표 8〉 타이베이시립도서관 발전 추이

	1981	1988	2001	2005	2007	2009	2012
도서관수(관)	13	24	52	53	53	43	43
직원수(명)	83	305	-	-	369	386	427
사서수(명)			-	-	234	226	289
행정직(명)			-	-	62	62	28
인구수(명)	2,196,237	2,608,881	2,646,474	2,616,645	2,632,242	2,622,923	2,650,968
장서량(책)	253,889	1,012,483	3,187,130	4,589,195	4,878,896	5,437,454	6,375,611
1인당장서수(책)	0.12	0.39	1.20	1.75	1.85	2.07	2.41
자료구입비 (NTD ¹⁹)	3,756,440	45,000,000	58,844,495	-	78,603,659	71,666,599	104,480,202
1인당자료구입비 (NTD)	1.71	17.25	22.24	-	29.86	27.32	39.41
대출량(책)			3,641,325	6,186,380	7,138,216	9,218,877	11,439,375
1인당대출책수 (책)			1.38	2.36	2.71	3.51	4.32

* 자료: 『中華民國70年圖書館年鑑』, 『中華民國77年圖書館年鑑』, 『中華民國90年圖書館年鑑』, 『我國圖書館資源分布現況初探-民國94年-』(嚴鼎忠 2006.), 『中華民國96年圖書館年鑑』, 『中華民國98年圖書館年鑑』, 『中華民國101年圖書館年鑑』

도서관의 발전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독서로 발전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이베이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발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의 특징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2.2 독서 진흥 활동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이 해마다 발행하는 독서진흥활동 모음집인 『臺北市立圖書館推廣活動彙編』 편집설명(編輯說明)에는 도서관의 각종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장서와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대중의 독서 풍조를 고조시키며 더 많은 민중을 도서관으로 이끌어 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다문화를 홍보하며 전 국민

의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행된 3년의 모음집 편집설명란을 살펴보면 2010년 독서 진흥활동을 펼친 장소는 15,660곳에 달하며 참여인원이 972,953명에 달하였으며 2011년에는 16,595곳에서 1,046,487명이 참여하였고, 2012년은 17,047곳에서 1,022,096명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臺北市立圖書館 2011: 2012: 2013). 전체 타이베이시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인원이 독서진흥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독서 진흥 활동은 〈표 9〉에서와 같이 독서를 장려하고 도서관 장서를 활용한 도서전시와 이용교육 등의 장서기반 프로그램과 영어, 일어 등의 외국어와 이주민을 위한 중국어 교육 프

19) NTD(New Taiwan dollar)는 대만 화폐 단위로 지난 3년간 원화 환율 1NT\$ 대비 35~40원이다.

〈표 9〉 타이베이시립도서관 독서 진흥 프로그램

유형	독서 진흥 프로그램 내용
주제활동	* 독서 진흥 활동: 북스타트, 방학 독서 교실, '책의 날' 활동, 청소년독서연구조사발표회, 초등학교 협력독서진흥 활동, 전국도서교환의 날 활동, 박물관연관활동, 책만들기 등 * 장서 특색 활동: '한 달에 한 권' 책읽기, 특색장서 홍보 강좌, 법률강좌, 일요독서, 풍속 강좌, 향토자원교육, 대만문학, 최고 추천 도서 평가 선정 활동, 자연활동 등
강좌 좌담회	달마다 한 권 독서 강좌, 음악, 영화, 주제전시,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작가와 독자의 만남, 유학강좌, 유학생 좌담회, 과학, 보건, 건강, DIY, 영어학습, 학교독서홍보계획, 어린이 이야기들려주기 등의 강좌
워크숍	* 독서워크숍: 초중고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 독서회회원 등을 대상으로 독서와 작문 등 * 어학실습반: 성인, 학생, 유아와 학부모, 50세 이상, 18세 이상 등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 일어, 외국서적 읽기 등 * 컴퓨터실습반: Word, Powerpoint, Excel 등의 기본적인 기초프로그램과 Google 사용, 동영상, 3D건축 실무 등
독서회	* 성인 독서회: 문학, 청소년영문소설, 미국결작단편소설, 영어, 두뇌개발, 예술과 삶, 원주민주제영화 등을 주제로 함. * 어린이·학부모 독서회: 영어소설, 문학, 영화문화, 애독자 독서회 등
전시회	여행, 과학, 노인독서, 건축, 음식, 건강, 계절, 위생보건, 문학, 예술, 객가풍속, 책속의 영화, 창업, 디지털 등의 다양한 주제로 한해 78건의 도서전시회
영상활동	영상예술동호회,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영화교실, 어린이청소년영화, 대만국제아동영화전 등 영화상영
어린이활동	* 독서활동: 영어동화, 양성평등교육, 타타요정과 대만여행 * 이야기활동: 이야기들려주기, 영어이야기시간, 원어민영어이야기시간, 어린이날 행사, 영어자원봉사단 공연 활동, 이야기극장 등
기념일 축제	어린이날, 어머니날, 단오절, 아버지의날,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 행사
청소년활동	청소년독서회, 청소년도서 주제전시회, 청소년독서계획, 도서대출활동, 청소년영화, 미국소설 읽기 등
이민자활동	다문화자료센터 주제전시, 다문화자료센터 각국 영화 상영, 인도문화강좌, 중국어과정, 혼인교육강좌, 이민자 단체활동, 컴퓨터 실습, 생활언어강좌, 풍습강좌 등의 이주민을 위한 강좌와 활동
노인활동	노인학습센터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 영어, 일어 등 어학강좌, 컴퓨터 실습반, 각 분관별 노인독서프로그램, 위생보건도서전시, 생명교육(선종강좌), 노인독서회, 이야기자원봉사교육 등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자료이용교육, 전자자료이용교육, 참고자료이용교육, 데이터베이스이용교육, '도서관' 주제도서전시, 학생공공서비스 실습, 주제 자료 조사 활동 등으로 일반 대중, 자원봉사자, 학교교직원, 참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용교육
사회교육 예술단체	미국계대만협회와의 협력으로 대만-미국 문화교류 촉진, 노인학습센터와 노인학습시범센터 공간개조 개관, 베이타우분관과 녹색생활 활동, 시정부 교육국과 각 학교와 일반 시민의 어문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지도로 지방문헌을 읽고 지방문화 기록 및 촬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

그럼, 컴퓨터 활용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교양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프로그램 진행상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지역 학교와 노인센터, 시립박물관 등의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 공공도서관은 도서관간의 상호협력뿐만 아니라 학교와의 장서 및 프로그

램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 서비스를 위한 '노인학습센터'와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성인대상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문화프로그램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고, 도서관이용교육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의 도서관이용교육은 대부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일반 성인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회, 도서전시,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색이 있다. 대만은 2012년 65세 이상 연령이 11.15%로 11.8%인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도서관은 노인서비스 측면에서도 서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제중심의 독서활동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도서전시뿐만 아니라 독서회, 독서교실 등 많은 독서 프로그램을 주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총관과 분관이 같은 주제로 진행되기도 하고, 도서전시, 강좌, 야외활동 등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이 같은 주제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도 한다.

다섯째, 노인, 학부모,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대의 독서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서회는 '한 달에 한 권'과 같이 달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모이는 독서회에서부터 매주 운영되는 독서회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70개 독서회가 타이베이시립도서관에서 활동 중이다.

〈표 9〉와 같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독서 진흥 프로그램은 책읽기를 즐기는 타이베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공적 독서의 중심 공간으로서 인식하도록 하였다. 지난 5년 동안 타이베이시립도서관 독서 진흥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과 참여한 인원의 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아 이런 경향

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2.3 현장 중심 연구 풍토

타이베이시립도서관 조직에는 홍보마케팅과(推廣課)가 있어 조사 통계, 연구 실험, 전시 강연, 참관 안내, 사서 계속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에는 '지혜도서관과 전자동대출반납기²⁰⁾ 사용 효율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2012년에는 '노인 학습 요구와 만족도 연구', 2011년에는 '타이베이 고등학생의 정보요구와 시립도서관 사용 행위에 관한 연구'를 하는 등 해마다 타이베이 시립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연구를 하여 타이베이시립도서관 독서네트워크(臺北市立圖書館閱讀網)에 탑재하고 있다. 자관의 각종 서비스를 연구하는 조직을 관내에 두어 현장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관행은 다른 도서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은 학술지 『타이베이시립도서관관신(臺北市立圖書館館訊)』을 1983년부터 지금까지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대만 도서관계 학술지는 중국도서관학회와 각 대학 문헌정보학연구소,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이 계간지는 공공도서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유일하며 타이베이시뿐만 아니라 대만 전역의 공공도서관 현장에 관한 연구를 해 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계간지의 발간은 타이베이시립도

20)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은 43개 분관과 11개 민중열람실 외에도 6개 지혜도서관과 3개 Fast Book 전자동대출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혜도서관'은 무인도서관으로 대체로 1만권 내외의 도서와 정기간행물을 열람, 대출, 반납이 가능하며 각 관마다 개방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개방하는 곳이 3곳이다. Fast Book 전자동대출기는 1개 기계에 134권을 보유하며 365일 24시간 대출반납이 가능하다.

서관의 전문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라고 할 만하다.

이 계간지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의 저자는 문헌정보학 교수와 국가연구기관 연구원, 도서관장, 사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각 호마다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행하는데 서비스, 장서, 정보화, 인력, 시설, 교류협력, 교육, 독서, 법 등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 그 외에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로 도서관의 이미지, 도서관 서비스의 이미지, 직원의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역할에 대한 이미지 등이 있어 이용자에게 도서관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인식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다. 또 윤리와 관련된 연구로 도서 윤리, 직업 윤리, 인터넷윤리, 정보윤리 등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최근 주제로는 정보활용, 고객관리, 공간 계획과 개조, 정보활용교육, 자원봉사참여 등이 눈에 띈다.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의 현장연구는 자관에 관한 연구와 연구학술지 발행뿐만 아니라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석박사논문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臺北市立圖書館 網站 2014). 도서관 현장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도서관현장의 관계는 상호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장의 연구 결과 수용 태도는 현장 연구를 더욱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2.4 친환경 도서관 건축

대만 도서관계는 도서관 내부공간과 건축, 설계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타이베이시립도서관관신(臺北市立圖書館館訊)』에서도 건축, 내부공간 등의 연구 주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친환경도서관으로 세워진 베이

터우분관(北投分館)은 타이베이시립도서관 건축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타이베이시립도서관 베이터우분관은 지붕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태양전지패널을 설치하여 전기 16kw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다. 조명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프랑스식 창문을 설치하고 발코니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계곡물 소리와 새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 녹색 잔디 지붕을 두어 그늘을 만들어 건물 실내 온도를 낮춤으로써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경사진 지붕에서 모아진 빗물을 탱크에 모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과 전기를 모두 아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건축 재료를 나무와 철등을 사용하여 주변의 뛰어난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휴양지였던 베이터우온천이 주변에 있으며 앞뒤로 국립공원이 있어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2년 베이터우분관(北投分館)을 계획할 때만 해도 녹색 건축에 대한 공감대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주변 토지에 황성분이 많고 주변 공원에 오래되고 수려한 나무가 많아 특히 지역 주민이 도서관을 짓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도서관 직원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도서관 건설 계획의 구체적인 목적을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소통하였다. 그 후에 주변 자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모으고 계획을 세워 주변의 자연과 역사적인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도서관과 장서, 이용자 등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녹색 도서관

의 유지관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대만 최초의 '녹색 도서관'으로 2006년 개관하였다(Tseng 2008, 327).

이후 베이더우분관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공원과 온천, 도서관이 어울어지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친환경 건축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의 방문 또한 빈번하다. 베이더우분관 건설과정은 대만 공공도서관 건축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오랜 시간 도서관 건축과 공간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과 연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타이베이시립도서관장(1998-2007)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인 쟡쑤셴(曾淑賢)은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의 지난 20년 동안의 사업으로 대만 공공도서관을 선도하는 도서관으로 또 국외 도서관 전문가들로부터 학습대상이 되는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도서관서비스 거점 증설, 연령대별 서비스와 소외계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확대, 디지털 서비스, 분관별 다양하게 특색화된 장서 구축, 혁신적 서비스, 다양한 독서 풍조 강화, 친환경 도서관 건축, 국제적 교류와 도서 교환 등 12개 영역을 들었다(曾淑賢 2012).

이 외에도 1996년부터 품질관리에 대한 개념을 강화하고 ISO국제표준품질관리에 맞는 업무 표준과 이용자만족품질관리체계 등을 세워 노력한 결과 ISO9002 인증도서관이 되었다. 도서관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한 우수한 직원계속교육 역시 타이베이시립도서관발전의 동인 중 하나로 꼽았다. 매년 신입직원뿐만 아니라 실무 책임자, 경영 관리자, 프로젝트 계획 참가자에 이르기까지 직원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자기

개발교육 등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해왔다. 강좌뿐만 아니라 실습, 토론회, 탐방, 연수, 학회참가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도서관학 정기간행물 논문의 새로운 지식이나 전문서적 독서회와 같은 형태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3 대만 공공도서관의 특징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특징들 중에는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입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요소들도 적지 않다.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전문직 관장 보임의 전통, 성인 독서 진흥활동, 국립 공공도서관의 선도적 위상 등을 중심으로 대만 공공도서관의 특징을 우리 도서관 상황과 비교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3.3.1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을 통해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로 '館際合作' 즉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이다. 이는 대만 도서관계 학술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어이며,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런 상호협력은 공공도서관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기 전에도 있어왔는데 광복 후 공공도서관이 이동도서관 차량을 학교로 보내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교육부와 국립대만도서관 주도로 '공공도서관 독서진흥과 장서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는데 '북스타트'나 '한 도시 한 책'과 같은 독서진흥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실시

하였다. 271개 학교와 48개 공공도서관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1,242건의 행사로 383,568명이 참석(Ke and Wen 2012, 3)하기도 했다.

공공도서관과 초·중·고 학교도서관간의 협력으로 독서프로그램 협력뿐만 아니라 장서와 목록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할시립도서관과 현시도서관이나 향진도서관과의 협력, 중국대륙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협력 장서 개발, 상호대차, 직원 계속교육 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협력은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모색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만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 활동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3.3.2 전문직 관장 보임

대만 국립중앙도서관(현 국가도서관) 초대 관장인 장푸충(蔣復聰)은 국비로 독일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뒤 도서관장이 되었다. 이후 4대, 5대, 6대, 9대 국립도서관장은 도서관학자이며, 도서관학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학이나 박물관학 등을 연구한 국가연구기관 학자나 교수가 맡았다. 12대 도서관장과 현재 국가도서관장인 13대 국가도서관장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시립도서관 등에서 오랫동안 현장경험을 쌓은 도서관전문가가 맡고 있다. 현재 국가도서관장뿐만 아니라 국립공공도서관장, 타이베이시립도서관장 등 주요 도서관의 관장은 모두 문헌정보학을 전공(학사, 석사, 박사)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도서관 전문가들이다.

도서관장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아 6대 국

가도서관장 왕젠구(王振鵠, 문헌정보학 교수)는 12년 6개월 동안 맡아 대만 도서관의 발전 토대를 닦았으며, 현 국가도서관장인 쩡쑤셴(曾淑賢) 또한 1998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1년 2개월 동안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의 발전을 이끌었다. 도서관 전문가에 의한 장기적인 도서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제강점 하에서 도서관을 통제하기 위한 행정관료 파견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관장이 관료와 정치인으로 보임되고 재임기간도 길지 않아 국가의 도서관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인 리더십으로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3.3.3 성인 독서진흥 활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을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여긴 사회풍조와 국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양국의 어린이 교육과 어린이 독서 활동은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의 성인 독서 진흥 활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데 비해 대만은 전체 독서 진흥 프로그램에서 성인 대상 프로그램 비율이 높다. 프로그램의 종류도 독서 강좌, 독서회 등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학, 컴퓨터, 생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88년 성인교육 체계의 건립과 전 국민의 평생교육 목표 달성 계획으로 성인교육 기본법규를 제정한 후 1989년 '성인교육 5개년 발

전계획'에 성인 기본교육, 성인연수교육, 각종 단기보습, 방송통신교육, 노인교육, 대학확장교육, 여성교육 그리고 독서회활동 등의 교육활동을 계획(박복선 1999)한 것이 바탕이 된 것으로 정부의 평생교육 시책과 독서를 좋아하는 타이베이시민들의 성향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노력이 합쳐져 지금의 왕성한 독서진흥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른들이 독서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린이 독서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사회 전반의 독서문화 진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만 공공도서관의 성인 독서진흥 활동은 도서관의 독서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

3.3.4 공립 공공도서관의 선도적 위상

일제강점기 대만의 공공도서관은 대만 총독부도서관이 이끌었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경우 일제강점기에도 사립도서관이 많았고, 1990년대 작은도서관운동이나 2000년대 초반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어 낸 기적의 도서관 등 역시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가능했다. 이런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만은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도서관 발전 역시 정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공립공공도서관은 재정적, 행정적 기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의 장서, 인력, 시설, 사업 등 모든 방면에서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주도적 위치는 지역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 모범이 될 것이며, 국립대만도서관의 전국 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지원은 국립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도서관 리더십은 나약하고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면 대만 공공도서관의 공적 리더십은 공공도서관 체제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만하다.

4. 결 론

대만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근대화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한족과 원주민의 언어 이질감을 일본어로 통일시키며 개화기를 겪은 나라이다. 이런 바탕 위에 중화민국 정부 천도로 중국어를 중심으로 한 지도층의 지배와 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의 발전은 정치적 계엄상황과 경제발전으로 문화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가 미약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사회적 변화와 1980년대 계엄령 해제로 출판의 자유와 도서관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몇 가지 장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 도서관 발전의 바탕에는 독서를 좋아하는 국민적 성향이 바탕이 되었다. 특히 성인독서인구가 많다는 점은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최근 실버세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참고할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둘째, 녹색도서관건축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다. 타이베이시립도서관 베이터우분관을 시작으로 도서관 건축에 친환경 정책이 강조되고 있

다. 도서관 건축에 있어 도서관 전문가와 지역 사회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이다. 최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과 지역 대학도서관의 협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장서 공유를 넘어서는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 모습이다. 협력과 연대는 21세기 도서관 발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넷째, 참고서비스의 발전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강조되어온 조사도서관의 기능은 도서관 자료를 일본 본토에까지 참고서비스를 하게 했다. 참고서비스를 위한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강조하는 모습은 최근 정보활용과 정보활용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만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활동 전반에 주제중심활동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다섯째, 현장의 연구 노력이다. 국가도서관뿐만 아니라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은 도서관계 학술지 중에서도 오래 전부터 발행되어온 학술지이다. 이러한 현장의 연구 노력은 현장을 위한 연구 문화를 발전시키고 연구로 인해 현장 발전으로 이어진다. 현장과 연구의 상호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만은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적으로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친 나라이다. 이런 과정에서 발전한 도서관의 모습은 서로 본받을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을 통해 대만 공공도서관의 장점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접목할 수 있는 지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앞으로 독서진흥활동과 도서관학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 더 많은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학술적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Kaser, D., Stone, C. W. and Byrd, C. K. 1970. 『발전도상국의 도서관』. 김정근, 김두홍, 정필모 [공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 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005. 日本の植民地図書館: アジアにおける日本近代図書館史. 최석두 옮김. 2009. 『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아시아에서의 일본 근대 도서관사』. 파주: 한울.
- [3] 김남석. 2010. 『일제치하 도서관과 사회교육』. 대구: 태일사.
- [4] 김포옥. 1991. 光復以後 韓國 公共圖書館史 研究 - 日帝下 公共圖書館制度의 影響을 中心으로 -. 『문헌정보학회지』, 20: 65-125.
- [5] 박복선. 1999. 중화민국(대만)의 성인교육발전과 미래 동향. 『Andragogy Today』, 2(4): 121-150.
- [6] 손정표. 1981. 臺灣의 圖書館學教育. 『국회도서관보』, 18(4): 37-46.
- [7] 범우출판문화재단. 2010. 『타이완 출판산업의 발전과 양안교류』. 파주: 범우사.

- [8] 이영자, 남권희. 1983. 한국·중국·일본의 도서관 자동화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0: 193-228.
- [9] 조형진. 1989. 韓中兩國의 大學圖書館基準에 관한 比較研究: 圖書館法施行令의 長短點과 아울러. 『圖書館學』, 5(1): 33-55.
- [10] 최창근, 홍길동, 신아람. 2012. 『대만(臺灣) 우리가 잠시 잊은 가까운 이웃』. 서울: 대선.
- [11] 한국도서관협회. 1958. 臺灣省立臺北圖書館概況. 『도협월보』, 5-6: 20-25.
- [12]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도서관연감 2012』.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3] Ke, Hao-Ren and Wen, Yen.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Libraries and Elementary Schools in Taiwan.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8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Assembly*. 2012.8.11: Helsinki. [cited 2014. 6. 20.]
 <<http://conference.ifla.org/past-wlic/2012/118-ke-en.pdf>>
- [14] Khoo, Christopher S. G. 2011. "Towards an Asian 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Research."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4-19.
- [15] Tseng, Shu-hsien. 2008. "Green library design and evaluation: the Taipei Public Library, Taiwan." *New Library World*, 109(7/8): 321-336.
- [16] Um, Young-Ai. 1989. "LIBRARY EDUCATION I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A COMPARATIVE STUDY(I)." *The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 203-227.
- [17] 國家圖書館 網站 [online] [cited 2014. 7. 8.] <www.ncl.edu.tw>
- [18] 國家圖書館. 1981. 『中華民國70年圖書館年鑑』. 臺北: 國家圖書館.
- [19] 國家圖書館. 1988. 『中華民國77年圖書館年鑑』. 臺北: 國家圖書館.
- [20] 國家圖書館. 2001. 『中華民國90年圖書館年鑑』. 臺北: 國家圖書館.
- [21] 國家圖書館. 2007. 『中華民國96年圖書館年鑑』. 臺北: 國家圖書館.
- [22] 國家圖書館. 2009. 『中華民國98年圖書館年鑑』. 臺北: 國家圖書館.
- [23] 國家圖書館. 2012. 『中華民國101年圖書館年鑑』. 臺北: 國家圖書館.
- [24] 國家圖書館 全國圖書館調查統計系統. [online] [cited 2014. 7. 5.]
 <<http://libstat.ncl.edu.tw/>>
- [25] 臺灣百年圖書館史. [online] [cited 2014. 6. 25.] <<http://tlh.lias.nccu.edu.tw/dspace/>>
- [26] 臺北市立圖書館 網站 [online] [cited 2014. 7. 9.] <<http://www.tpml.edu.tw>>
- [27] 臺北市立圖書館. 2011. 『臺北市立圖書館推廣活動彙編99年度』. 臺北: 臺北市立圖書館.
- [28] 臺北市立圖書館. 2012. 『臺北市立圖書館推廣活動彙編100年度』. 臺北: 臺北市立圖書館.
- [29] 臺北市立圖書館. 2013. 『臺北市立圖書館推廣活動彙編101年度』. 臺北: 臺北市立圖書館.
- [30] 宋建成. 2007. 臺灣公共圖書館史. 『圖書與資訊學刊』, 63: 36-46.

- [31] 嚴鼎忠. 2006. 我國圖書館資源分布現況初探 -民國94年-. 『國家圖書館館刊』, 95年第1期: 135-173.
- [32] 王梅玲. 2011. 國圖書館發展史, 『中華民國發展史·教育與文化下冊』, 台北市: 聯經, 頁560-594.
- [33] 王振鵠. 1975. 三十年來的臺灣圖書館事業. 『圖書館學與資訊科學』, 1(2): 41-69.
- [34] 王振鵠. 2007. 百年來的臺灣圖書館事業. 『圖書與資訊學刊』, 63: 1-9.
- [35] 中國圖書館學會. 2000. 『圖書館事業發展白皮書』, 臺北: 中國圖書館學會.
- [36] 中華民國圖書館學會 網站. [online] [cited 2014. 7. 13.] <<http://www.lac.org.tw/>>
- [37] 曾堃賢. 1987. 日據時期(1895-1945)臺灣區公共圖書館事業之研究. 『教育資料與圖書館學』, 24(4): 410-440.
- [38] 曾淑賢. 2012. 卓越·創新·活力團隊; 幸福·快樂·學習城市: 臺北市立圖書館60館慶之回顧與展望. 『臺北市立圖書館館訊』, 30(1): 15-3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ser, David, Stone, C. Walter and Byrd, Cecil K. 1970. *Librari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 Kato Kazuo, Kawata Iko and Tojo Fuminori. 2005. *Japan's Colonial Library: The History of Japanese modern Libraries in Asia*. Paju: Hanul Publishing Group.
- [3] Kim, Nam-Seok. 2010. *Public libraries and Adult education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Daegu: Taeilsa.
- [4] Kim, Po-ok. 1991. "A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Public Library after the Korean Liberation Day: An Emphasis on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ies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 65-125.
- [5] Park, Bok-sun. 1999. "Development and Future Trend of Adults Education in Taiwan." *Andragogy Today*, 2(4): 121-150.
- [6] Sohn, Jung-Pyo. 1981. "Library Science Education in Taiwan." *National Assembly Library Magazine*, 18(4): 37-46.
- [7] Bumwoo Publishing Culture Foundation. 2010. *Taiwan publishing system*. Paju: Bumwoosa.
- [8] Lee, Young-ja and Nam, Kwon-Hee. 1983. "A Comparative Study of Library Automation Among Korea, Taiwan and Jap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0: 193-228.
- [9] Cho, Hyung-Jin. 1989. "A Comparative Study of University Library of Standard in Korea

- and Taiwa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5(1): 33-55.
- [10] Choi, Chang-geun, Hong, Gil-dong and Shin, Ah-ram. 2012. *Taiwan-Our Neighbor forgotten temporarily*. Seoul: Daesun.
- [11]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58. “General Condition of Taiwan Province Taipei Library.” *Monthly Buletine of Korean Library Association*, 5-6: 20-25.
- [12]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Library Yearbook 2012*. Seoul: KLA.

